

책방—입체화된 신문문화면

최정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독일의 대학에 입학하면 그날로 바로 대학서점을 찾게 된다. 대학서점이라 해서 반드시 대학의 구내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건물앞, 흔히 '우니플라츠'라 일컫고 있는 대학 광장에 문을 열고 있는 책방들을 대부분 대학서점이라 부르고 있다. 더러는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지의 큰 책방을 특별히 대학서점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도 있다.

입학과 더불어 대학서점과 인연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매학기마다 새로 발간되는 대학의 전체 교수 및 강사진의 주소록을 곁들인 두툼한 강의시간표를 우선 대학서점에 가서 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학기초에 교수들이 소개하는 참고문헌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대학서점이다. 그 경우 놀랍고 신동맞고 깜찍하기조차 한것은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젊은 여자점원들이다. 책방 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쓴살같이 달려와서 "무얼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다. 이쪽에서 책이름을 대면 신간이건 고전이건 그 책의 재고가 있고 없고하는 것이랄지 언제 절판되고 또는 언제 중판되고 하는 것들을 두르르 알려준다.

나는 대학서점만이 아니라 독일의 일반 서점 점원들의 것처럼 해박한 문헌·서지(書誌)에 관한 지식에 못내 탄복하고 있었으나 훨씬 후에야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연한 기회에 대학서점의 점원과 한 지붕밑에서 하숙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놀랍고 신동맞고 깜찍한 여자 점원들은 그렇게 타고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길러진 것이다. 서점의 점원이 되기 위해선——그 연수 기간이 얼마동안인지는 잊어버렸지만——일정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아무나 데려다 앉혀 놓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살 책이 있어서 책방에 들르게 되는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적인 대형서점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이다.

살 책이 없어도 책방 앞을 지나가면 갑자기 책 살 생각이 나서 책방문을 들어서도 록 하는 것이 독일의 책방들이다. 고객들의 수요를 기다려 책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엔 없었던 고객들의 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주는 곳이 곧 책방이요, 특히 책방의 쇼윈도이다.

가령, 시인 엔첸스베르거가 쾰른시에서 주는 '하인리히 뵐(노벨상 수상작가)상'을 타게 되었다고 하면 책방의 진열장마다 엔첸스베르거의 모든 저작, 그에 대한 평전 및 하인리히 뵐의 작품집 등이 엔첸스베르거와 뵐의 각종 스냅사진과 함께 진열된다.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유명 신문의 기사나 비평이 확대·복사되어서 전시된다.

혹은 유럽의 전위미술 메카인 카셀의 '도큐멘타'전시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출품한 작가들의 화집과 함께 전위미술에 관한 각종 문헌들이 체계적으로 해설과 함께 진열된다.

바캉스철이 되면 관광안내 책자, 오너 드라이버를 위한 가이드북, 유럽자동차 여행용 지도, 南佛이나 스페인의 특산 요리책 등이 '경연'을 한다.

말하자면 책방의 쇼윈도는 입체화된 매일매일의 신문문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서점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집중분석	2	80년대는 詩人の 시대인가/이광복
	4	막오르는 推理小説시대/이 청
초점	6	도서유통 현대화의 새 軛機
독서의 현장	12	일하면서 읽는 「상록독서회」
서재	24	어류학자 鄭文基박사의 「自怡齋」
인터뷰	16	한국근대사상 연구하는 愼鏞廈교수
지금 독서중	8	林鍾國의 「親日論說選集」—연출가 金錫滿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교사 李恩珠
	9	한국사연구회의 「한국사연구입문」—직장인 黃寅容
지금 집필중	9	「세계法學人名事典」집필하는 崔鍾庫교수
지금 번역중	10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번역하는 姜明求교수
지금 제작중	10	한국판 「옥스퍼드 英韓사전」—三省出版社
북다이제스트	14	金在恩교수의 「한국인의 意識과 행동양식」
출판화제	18	활기 띠는 女性百科
	19	시들지 않는 「金容沃님」
세계의 출판	28	영국정부 때어난 수난-「스파이캐처」의 波紋
		마르케즈의 新作 「철레의 비밀」
		포이케르트의 「나찌독일의 내면」
	29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
	30	일본의 出版情報誌
저작권 통신	31	남북文人の 「금서」출판과 著作權문제
서평	20	「韓國現代人物論」—宋建鎬
		「韓國政治文化」—安清市
	21	「文化産業論」—李重漢
		「아들교육」—김재은
	22	「한국의 古生物」—鄭昌熙
		「韓國出版文化史大要」—李康洙
	23	「自然主義文學論」—洪廷善
		「서울金石文大觀」외 —申瓚均
독자서평	27	「한국불교의 새 얼굴」·「小説 東京帝國大學」
	32	신간안내
	42	200자 안내
	45	신간목록
	40	출판계 움직임
	11	해외결작선
	13	책주변의 이야기
	17	전문서점 「포토박스」
	41	읽기자료가 나온 모임들
	44	정기간행물출판 기사색인
	48	독서퍼즐/정기구독 안내